

해외 출장 보고서

작성자: 이꽃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연구원)

일시: 2011년 5월 14 - 5월 17일

장소: 미국 몬타나주 빅스카이 Yellowstone Conference Center

목적: APEC FSCF 워크샵 참석

참석자 : 이꽃임(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오혜영 부장(식약청 식품기준부), 황명실 연구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해분석연구과), 서정혁 연구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염물질과), 강경모 연구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학물질과)

□참가목적 및 활동내용

1. Food Safety Incident Management Workshop

(식품안전사고 시 위기관리 워크샵, 5월 14일)

5월 14일-15일 양일에 걸쳐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워크샵이 진행이 되었다. 각 나라 정부 및 산업체등이 best practices와 protocols들을 발표했으며, 오후에 Bob Brackett 패널 의장의 진행 하에 5명의 패널들이 참석하여 위기대응 매뉴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 식약청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정혁 연구관이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하여 식약청 위기대응 매뉴얼을 소개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등에 대해서 논하였다.

2. Food Safety Incident Networks (FSIN) 신설 (5월 15일)

WHO/FAO 산하 INFOSAN과 유사한 성격의 network을 이번에 아태지역 내 Food Safety Incident Networks (FSIN)라는 이름으로 신설하였다. 회원국들 간의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교류 및 대처방안 논의를 위한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손문기 국장(식약청 식품안전국), 최동미 과장(식약청 식품관리과)을 contact points로 추천했다. 이번 워크샵에 INFOSAN의 Andrea Eills가 초청되어 INFOSAN의 활동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 FSIN이 INFOSAN의 역할과 어떻게 차별화를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3. PTIN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5월 16일)

현재 우리나라는 PTIN의 운영위원회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미팅에 참석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Steve McCutcheon 공동의장으로부터 우리나라 참가자들이 Observer로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오혜영 부장, 황명실 연구관, 이꽃임 연구원 3명이 roundtable meeting에 참석했다. PTIN 사업에 대한 논의와 sponsor 중 하나인 World Bank간의 협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운영위원회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추천을 받았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APEC PTIN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운영원칙들이며 activities들에 있어서 leading country로써 한발 내딛게 되었다.

4. 3차 APEC FSCF 정기 총회 참석 (5월 17일)

이번 FSCF 3차 정기 총회는 2009년 싱가포르 회의에서 결정된 운영원칙들(Operating Principles)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2011-2013년까지 향후 권고안들(recommendations)을 토론을 거쳐 확정을 지었다.